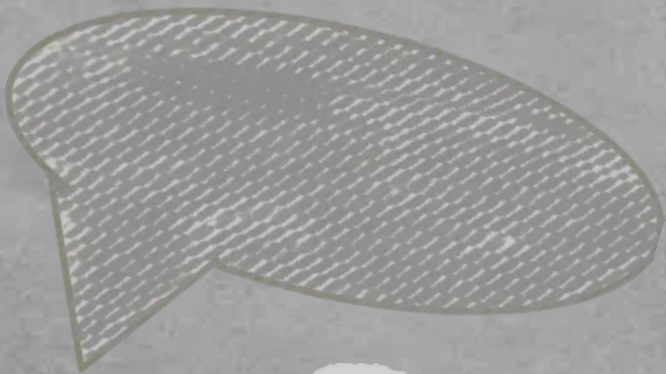




혹시, **이런 말** 쓰고 계신가요?

당신이 몰랐던 유행어 속 차별/혐오 표현



무심코 쓰는 유행어에도 차별과 혐오가 숨어있다


에겐/테토

결정장애

잼민이

틀딱

-밍아웃



원활한 소통을 막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
나쁜 언어 습관,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

소수자 혐오 표현

(장애인, 성소수자, 노인, 어린이 등)

결정장애, -밍아웃, -린이, 잼민이, 틀딱

장애를 '무능력'의 의미로 희화화하는 표현,
성소수자의 '커밍아웃'을 가볍게 소비하는 표현,
특정 연령층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 등은

모두 혐오 표현에 해당

소수자 혐오 표현

올바른 언어로 개선하려면?

~~우유부단~~, ~~-밍아웃~~, ~~초보~~, ~~잼민이~~, ~~틀딱~~

'결정장애'의 대체어로는 '우유부단하다'

"-린이" 대신 '-초보'

특정 집단 조롱 및 비하 표현 사용은 지양

특정 집단 차별 표현

(성별, 학년, 인종 등)

에겐녀, 테토남, 헌내기, 흑형, 화이트닝

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표현,
특정 존재를 '낮은 것'으로 치부하는 표현,
백인 우월주의 및 유색인종 비하 표현 등은
모두 차별 표현에 해당

특정 집단 차별 표현 올바른 언어로 개선하려면?

~~에겐녀~~, ~~테토남~~, 정든내기, 브라이트닝

에겐/테토 이분법적 유행어 사용은 지양!
2학년 이상의 대학생을 지칭할 땐 '정든내기'
미백 효과를 의미하는 표현으론 '브라이트닝'



무분별한 차별/혐오 표현 남용은 그만!

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
아름다운 언어 습관을
함께 만들어요!

